

‘감동 정읍관광’ 대도약 힘찬 첫 걸음

지역민·중·일 관계자 등 500명
‘2019~2020 정읍방문의 해’
서울 KTX용산역서 선포식
홍보 동영상 상영·축하공연도



지난 14일 서울 KTX용산역에서 열린 ‘2019~2020 정읍방문의 해’ 선포식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감동 정읍관광 대도약을 위한 정읍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다.

정읍시는 지난 14일 서울 KTX용산역에서 ‘감동 호르몬 분출, 체험여행 1번지 정읍’을 비전으로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재경정읍시민회 등 향우회 인사, 일본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 정읍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6개국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정읍출신 가수 송대관과 우연이, 여성 7인조 걸그룹인 ‘파스텔걸스’ 등 떠오르는 아이돌그룹, 아나운서와 배우 등이 대거 참석해 정읍관광 대도약의 힘찬 첫걸음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정읍방문의 해를 대내외에 알리고 정읍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대국

민 인식 제고, 그리고 투어리즘을 활용한 정읍관광의 활성화에 힘썼다.

정읍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동영상 상영과 음식·숙박·미용·버스와 택시, 체육·관광 해설사 등 관광업 관련 종사자들의 다짐식, 정읍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도 이

어졌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방문의 해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침체된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역량을 결집시켜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서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읍의 다양한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고, 지역민 모두의 정성과 배려로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감동관광 정읍’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우리 다 함께 웃어요”

공무원 대상 웃음 콘테스트…홍보 전도사 5명 선발도

순창군이 ‘우리 다 함께 웃어요’란 주제로 순창군 공무원 웃음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순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콘테스트는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직원을 찾아 순창군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또 민원응대에 있어 친절의 첫걸음인 웃음을 통해 민원인도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순창군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응모가

능하며, 혼자 또는 여러 명이 함께 웃고 있는 활력 넘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7월말까지 제출된 사진은 예심을 통해 20명의 본선 참가자를 선정하고, 전문 사진작가들이 본선 참가자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5명은 앞으로 순창군 웃음 홍보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9@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7월말 개관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오는 7월 말 개관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도동행정복지센터 옆에 들어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사업비 57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1454㎡,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됐다.

유아와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일반자료실, 장난감 대여실 등을 갖췄다.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고 장애물이 없

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 장애인과 임신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도서관 각 자료실에는 책 1만5000여권이 마련됐고, 장난감 500여 개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아동과 청소년 연령에 맞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내달 4~6일 전주서 개최

드론산업 전반을 살펴보는 국제박람회가 오는 7월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국토교통부는 7월 4~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2019 드론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드론 관련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외국 10개 업체를 비롯해 국내에서 총 1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신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한다.

또 드론 전시회, 첨단기술 시연, 콘퍼런스, 드론 축구, 경진대회 등도 곁들여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6년 최첨단 탄소 소재와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 기술을 개발한 전주시는 지난해 대한 드론축구협회를 공식 출범해 드론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박람회가 드론 시험·평가인증시스템 구축과 드론 제조 기반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복분자·수박 축제’ 21일 개막

수박 빨리먹기·복분자 족욕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제16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21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열린다.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와 수박을 주제로 한 축제로 수박 빨리먹기, 복분자 마시고 수박 나르기, 수박 카빙 경연대회, 수박과 복분자 쟁탈전, 복분자 족욕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를 위해 키즈 블록존, 바닥 분수가 설치되고 버블 쇼와 별문 쇼가 펼쳐진다.

수박과 복분자를 싸게 파는 직거래장터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 인근의 복분자클러스터 일원

에서는 농촌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제2회 고창 농촌영화제’가 개최된다.

고창복분자수박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는 가족단위의 체험 이벤트 행사를 강화해 초여름 나들이를 나온 관광객들 모두가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직판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산 가격으로 고품질 고창수박과 복분자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오셔서 축제를 즐겨달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전북 관광지 41곳 와이파이 설치…이용자 편의 제공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 41곳에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한 ‘2019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도내 관광지 41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스마트관광환경이 부족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관광객 수와 인지도, 중북투자 여부 등을 판단해 무선 와이파이 구축비의 52%를 지원한다.

도내는 지난해 39곳의 관광지가 선정

돼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된 바 있다. 올해 도는 사업공모를 위해 14개 시군과 협의해 신청 대상지를 선정했다. 지난 4월 말 한국관광공사에 응모해 41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주 객리단길과 군산 은파유원지 등 관광지 41곳에 총사업비 6억4800만원(국비 78, 도비 92, 시군비 219, 통신사 259)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오는 11월까지 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